

이동형 갤러리 '꽃심' 2기 사업 추진

전주시가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도심 속 열린 문화예술 전시공간인 이동형 갤러리의 2기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지정과 아시아 문화 심장지 조성추진 중인 가운데 문화콘텐츠 조성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갤러리 '꽃심'의 2차 참여 작가를 다음달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현재 꽃심은 지난 3월 1차 모집한 8명의 지역 작가들이 전북대 대학로를 시작으로 풍남문 광장에서 열린 미술관으로 운영 중이다.

그간 4명의 작가가 2~3주 간격으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전시, 작품 소개 등에 직접 참여하면서 전주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주목을 끌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분위기를 몰아 2차 참여 작가 모집을 통해 공간과 경계를 허무는 이동형 갤러리 '꽃심'을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전주의 명물로 만들기로 했다.

특히 지역 문화예술계의 척박한 환경 탓에 아트마켓 진입이 어려운 작가들에게 전시와 작품에 대한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는 미술관의 문턱을 낮춰 언제 어디서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공개 모집하는 참여 작가의 신청 자격은 공모시작일 현재 전주에 거주하는 시각예술작가로서 5년 이내 개인전 또는 1회 이상의 단체전을 개최한 실적이 있어



전주 풍남문 광장에 위치한 이동형 갤러리 '꽃심'.

내달 11일까지 2차 참여작가 공개모집 선정 작가는 10월부터 전시 기회 부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야 한다. 또 이동형 갤러리 규모를 고려해 전시 가능한 작품으로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작가는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작가별 2주간의 무료대관 전시 기회가 제공되며, 전시를 위한 작품 운반 및 설치

비,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작품판매를 통한 수익창출도 가능하다

전주시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이동형 갤러리는 아시아 문화심장지가 조성되는 구도심 등 전주 곳곳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전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실력 있는 작가들이 공모에 참여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동형 갤러리 '꽃심' 참여를 위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전화(063-283-9227)로 문의하면 된다. /안재용 기자



이동형 갤러리 '꽃심' 내부.

소리문화전당 '아빠가 만든 놀이터' 체험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여름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어린이 체험전 '우당탕탕 아빠가 만든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우당탕탕 아빠가 만든 놀이터'는 세 아이의 실제 아빠이기도 한 엄호철 감독이 아이들을 위한 감성공간으로 만들었다. 놀이터는 프렌디(Friend+Daddy, 친구 같은 아빠), 플레이디(Play+Daddy, 잘 놀아주는 아빠), 스칸디대디(Scandi+Daddy,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빠)를 콘셉트를 바탕으로 '아빠곰 캠퍼링' '못말리는 세탁소' '장릉나라 놀이터' 등 3개의 공간으로 꾸몄다.

전시는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며, 오전 10시부터 회차별로 입장가능하다.

인터네트 예매 시 어린이 1만2,900원, 성인 8,900원이며, 현장구매 시에는 어린이 14,000원, 성인 9,000원이다. 체험시간은 총 90분으로 24개월 이상 입장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군산야행의 성공적 개최 위한 준비 만전”

시, 추진상황 보고회... 행사는 내달 12일부터 이틀간

'80(夜) 주제로 50여개 공연·체험프로그램 운영

25일, 군산시는 문화재청 국립공모사업으로 선정돼 8월 12일부터 2일간, 다양한 역사문화유산 자원이 밀집된 근대역사박물관과 원도심 일원에서 펼쳐지는 야간형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인 '군산야행(夜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문동신 군산시장 주재로 국과장 및 읍면동장이 참석해 사업 준비 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방향, 50여개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방안 등 세부 내용을 점검하고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군산야행(夜行)은 밤에 즐기는 지역 문화 유산의 8가지 정취 '80(夜)'를 주제로, 야로(夜路, 밤에 걷는 아름다운 문화유산의 거리), 아화(夜話, 한 여름밤에 보

는 문화유산의 정취), 야사(夜史,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역사 이야기), 야설(夜說, 밤에 펼쳐지는 문화공연), 야경(夜景, 밤에 비춰보는 아름다운 군산의 문화유산), 야식(夜食, 밤에 즐기는 맛의 거리), 야시(夜市, 근대역사가 살아있는 문화장터)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근대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반경 2km이내의 분포한 다양한 지역 문화재를 거점으로 전시·관람, 문화재 답사, 거리 테마 공연, 체험활동 등 50여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공군 군악대·의장대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군산의 역사를 이야기하다(민담공연), 시립예술단 특별공연, 군산야행 빛의거리 조성군산 해마굴 복원전시 체험관, 문화재 3D 증강현실 체험 등 다채

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함께 진행되어 그 기대감이 더욱 크다.

한편, 군산야행은 작년 문화재청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행사로 선정된데 이어, 2017년 7월, 세계축제협회(IFEA)한국지부에서 주관하는 2017 IFEA WORLD KOREA 컨퍼런스, Firmace Award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인정받아 '올해의 축제인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내며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문동신 군산시장은 "이번 군산야행도 작년 이어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행사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길 당부하며, 특히 근대문화유산 빛의거리조성을 통한 새로운 야간형 문화관광 명소와 추진과 일회성이 아닌 연중 지속적인 문화 콘텐츠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말했다. /군산=장 현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포스터 공개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강경환)이 주최하고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집행위원회(집행위원장 김건)가 주관하는 제4회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의 포스터가 공개됐다.

'놀이하는 인간, 문화를 만든다'라는 주제로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펼쳐지는 축제는 영상과 공연으로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다. 영화 선정부터 세부 프로그램 구성까지 전반에 걸쳐 전통과 현대의 놀이 속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개된 공식 포스터에는 이번 축제의 주제인 '놀이하는 인간'의 형상이 라인 드로잉으로 담겨있다. 영상 매체를 통해 만나게 될 인류무형유산의 기록을 한 컷 한 컷의 프레임으로 연출했다.

축제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국립무형유산원의 유형적 요소와 영화와 공연으로 표현되는 무형적 요소를 포스터에 담아냄으로써 제4회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가 한정된 공간의 한계를 넘어 지속적 시간성으로 확장해가면서 대중 결로 더욱 다가갈겠다는 메시지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스터에는 tvN 드라마 '기억' '청춘시대' '38사기동대' 등 드라마와, 고려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등의 기업 브랜딩 작업을 하고 있는 '디자인스튜디오, 그림하는 김씨'가 제작에 참여했다. /정해은 기자



공연 & 전시

전통문화전당 '국악힐링 콘서트' 26일 개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대수)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전당 야간 공연 활성화를 위한 '국악힐링 콘서트'를 26일 7시 야외 소공연장에서 연다.

이날 무대에는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전주기립놀이로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하고 지난해 전당 공연수주단체로 활동했던 함곡마을문화생산자조합대표 김여명이 올라 율드타악과 창작사물놀이, 판소리, 민요 등 다양한 장르를 포함한 거리공연으로 펼친다.

이번 공연은 국악 위주의 지난 공연과 달리 시조를 노래로 표현한 전통가곡을 전통성악으로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며, 외부 객일을 초대해서 퓨전 국악실내악을 더욱 풍성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과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 토크콘서트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며, 간소한 먹거리가 마련된 디카파티도 갖는다.

아울러 다음달에는 '7080여고 졸업반', 10월과 11월에는 대나무로 만든 창작악기와 사물악기, 율드타악기가 어우러진 웅복한 공연 율드 타악 '뱀부'가 캐논, 아리랑 등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레퍼토리로 짜여진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오대수 원장은 "시민들이 질 높은 전통문화 행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시민들이 매일 마지막주 수요일은 전당에서 공연을 보고 힐링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www.namwon.go.kr

광한루원, 구룡계곡, 뱀사골계곡,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 트리하우스, 월매를 사랑한 놀부, 남원에촌

맛과 멋이 특별한 남원의 여름

지리산 물소리에 몸과 마음이 시원~ 우리 가락에 어깨가 들썩입니다

남원시